

정책논평

영국 중소기업 지원정책체제에 관한 고찰

주재현

세계시장에서의 기업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적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오늘날에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각국 정부로 하여금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정을 지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 하겠다. 그러나 어떤 지원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가장 잘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이 소고는 지난 수 년간에 걸쳐 중소기업지원 정책체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최근 들어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지원 정책체제 관련 논쟁에 기여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영국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함의를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영국 사례의 시사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창구를 단일화하고 이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점과, 지방수준에서 서비스 제공통로를 정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되 이를 단순히 이념적 입장이나 자의적 판단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것을 지양하고 충실한 조사와 연구에 근거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주제어 : 중소기업, 지원체제, 제도적 배열, 영국

1. 서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2001년 현재 그 총수가 약 285만 개로서 전 사업체의 99.8%를 구성하고 있으며, 종업원 수에서는 민간부문 고용의 85.6%인 997만 여 명이 중소기업 부문에 고용되어 있다. 또한 전 제조업 부가가치의 51.6%인 112조 7천억 원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수출에서도 전체 수출의 42%인 683억 달러를 중소기업 부문이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정

주재현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jhjoo61@mju.ac.kr

책형성과 조정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중소기업청과 지방사무소,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정책집행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형성 및 집행체제가 중소기업 지원에 적절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체제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형성 면에서 중앙정부의 중소기업 지원기능이 다원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형성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청 외에도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농림부, 그리고 문화관광부 등을 포함하는 여러 정부부처에서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해 종합적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들간의 원활한 업무협조와 조정이 필수적이지만, 중기특위와 중소기업청의 조직특성상의 한계로 인해 만족할 만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¹⁾

둘째, 중소기업정책 집행기능이 중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특히 지방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간에 판로지원·기술개발지원·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중심으로 유사·중복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사·기술지원·경영안정지원 등의 업무에서 부분적으로 지방중소기업청과 유사·중복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중소기업정책의 역할 재정립 문제이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주로 제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포함한 직접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두는 간접지원의 형태가 될 전망이다. 또한 제조업뿐 아니라 새롭게 발전되고 있는 산업을 포함한 전반적 산업정책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중소기업 지원문제에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이종수·오철호 외, 2003).

이러한 쟁점들과 관련하여, 최근 들어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며, 이 연구들은 특히 정책의 전달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수준 제 기관간의 기능재정립 문제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박재희 외, 2002; 소진광 외, 2002; 이상수 외, 2002; 오철호, 2003; 이환범·주효진, 2003). 이 연구들은 지방수준에서의 서비스 전달에 초점을 맞춰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중복과 그에 따른 역할 재정립 방안을 일반적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는 연구들과²⁾ 맥을 같이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지원행정체제에 초점을 두고 이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지방수준 제 기관간의 기능정립 문제와 관련하여 위의 연구들은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지방중소기업청의 기능을 자치단체를 포함한 여타의 공·사 기관으로 이양·위임·위탁하고 지방중소기업청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룹이다(박재희 외, 2002; 소진광 외, 2002). 또 하나는 첫 번째 그룹과 같은 단선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대신, 포괄적 정책방향만을 제시하거나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룹이다(이상수 외, 2002; 오철호, 2003; 이환범·주효진, 2003).

이 소고는 지난 수년간에 걸쳐 중소기업 지원정책체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논쟁의 심화에 도움이 될 자료를 제시하고, 영국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함의를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국내의 기존연구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직접적 답을 제시하거나 하나의 입장을 지지하는 대신, 영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체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추출하여 차후의 한국 중소기업 지원체제 개선에 필요한 지식의 축적에 기여하고자 한다.

영국의 중소기업 지원체제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먼저 영국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통상산업성 산하에 중소기업지원청(Small Business Service)을 두고 이를 통해 중앙의 정책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수준에서는 지역의 중소기업지원 지청과 자치단체, 기타 여러 기관들이 중소기업 지원행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영국의 경험은 우리의 중소기업 지원체제를 개선하는 데 의미 있는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영국

의 중소기업 지원체제는 아직 형성중에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즉, 영국이 현 중소기업 지원체제를 형성하게 된 근거와 현 체제를 다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체제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하에서는 먼저 영국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의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 후, 영국 중소기업 지원정책체제의 현황, 현 지원체제의 성립 근거 및 앞으로의 개선방향, 영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체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 순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2. 영국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정부의 지원의지

영국에는 2002년 9월 현재 약 3백70만 개의 업체가 존재하고 있다. 그 중 중소기업에³⁾ 해당하는 업체의 수가 99%를 구성하고 있다. 이 중소기업들이 영국 총 매출고(*turnover*)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부문 고용의 55%를 담당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생산성 향상과 혁신 및 국제경쟁력 제고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영국의 생산성은 평균적으로 볼 때 미국에 45%, 프랑스에 19%, 그리고 독일에 7% 정도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그런데 이러한 격차는 주로 대기업 부문에서 기인하는 반면, 중소기업 부문은 지속적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중소기업은 특유의 유연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배경으로 기업혁신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U. K. Small Business Service, 2002a: 12~15).⁵⁾ 이 조사결과는 영국이 다른 국가들과의 생산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기업 부문의 분발을 촉진해야 하는 것과 더불어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국내의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영국 정부가 1990년대 후반부터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지원체제를 정비하게 된 배경에는 이와 같은 인식전

환이 있었다고 하겠다.

영국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후술할 지원체제의 정비 등 여러 측면에서 나타났지만, 이러한 변화의 근거에는 총리를 필두로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자리잡고 있다. 특히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문제를 관련장관에게만 맡겨 두지 않고 직접 관심을 표명하여 여타 부처 장관들의 인식전환을 이끌었다. 이러한 총리의 지원하에 중소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부처의 장·차관들과 공무원들은 여러 차례 정책제안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총리의 동의를 얻어내어 추진하는 노력을 경주함으로써⁶⁾ 빠른 속도로 새로운 중소기업 지원정책체제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3. 영국 중소기업 지원정책체제의 현황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1960년대 이후 심각한 경제정체에 빠지게 된 영국은 경제 및 산업정책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중소기업 정책 또한 이러한 배경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1969년 노동당 정부가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구성된 볼튼위원회(Committee of Inquiry on Small Business)는 다음과 같은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부기구 등에 중소기업 전담기구를 창설하고 전담 장관을 둔다. 둘째, 경영기술 및 지도에서 자력지원에 의한 경쟁원리를 원칙으로 하되,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을 모든 주요 지방 상공업 중심지와 중앙에 설치한다. 셋째, 금융 면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금융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것은 금융제도상의 문제에서 오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특별한 정부금융기관의 설치나 보조금 및 장기저리융자의 필요성은 없다. 그러나 자금조달방법에 대한 정보제공은 필요하다. 넷째, 조세 면에는 중소기업의 법인세율 경감, 상속세의 경감,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회계처리방

법의 채용이 필요하다. 다섯째, 독점금지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상 정리된 바와 같이 1960년대 말 당시 영국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은 중소기업이 지니고 있는 불이익을 시정하는 수준의 내용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지향하는 성격의 정책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볼튼위원회의 정책건의는 중소기업 정책기구 면에서, 통상산업성(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내의 중소기업국(Small Firms Division) 형성과 중소기업국이 관할하는 10개의 중소기업정보센터(Small Firm Information Centre) 설치라는 성과를 산출했다(이상수 외, 2002: 102~104). 1970년대에 형성된 이 기본체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큰 변화를 겪게 된다.

1) 중앙정부의 정책형성 및 조정체제

영국의 중앙행정부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중소기업지원청(SBS: Small Business Service)이다. SBS는 2000년 4월 통상산업성의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y*)으로 출범했다.⁷⁾ SBS는 잉글랜드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을 담당하며, 웨일스·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 지역의 경우에는 그 지역의 정부와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BS가 중소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비전은 “2005년까지 영국이 전 세계에서 기업의 창업과 성장에서 최선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비전은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 창업의 의욕과 기술, 그리고 적절한 기회를 지니고 있는 이들은 누구나 다 성공적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2) 사업을 발전시키려는 야심을 지니고 있는 이들은 누구나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모든 중소기업들이 다 정부의 요구에 쉽게 반응하고 정부의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을 조성한다(U. K. Small Business Service, 2003a: 4).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SBS는 다음의 일곱 부문을 전략적

과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① 기업문화의 조성, ② 보다 역동적인 창업시장의 조성, ③ 중소기업 성장능력의 확충, ④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 접근도 개선, ⑤ 소외된 지역사회와 소수집단에 대한 기업활동 장려, ⑥ 정부서비스에 대한 중소기업의 긍정적 인식제고, ⑦ 규제와 정책의 개선(U. K. Small Business Service, 2002b: 3~6) 등이다.

위의 비전과 전략과제의 추진에서 SBS는 중앙정부 내에서 중소기업과 관련된 정책자문과 조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영국 정부의 각 부처들은 주요 정책의 입안에서 해당 정책이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먼저 고려해보도록 요청되고 있다(*Think Small First*). 특히 규제정책에 관한 쟁점들에서 각 부처들은 정책입안의 초기단계에서 SBS에 자문을 구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SBS는 정부 내에서 중소기업관련 쟁점에 관해 가장 높은 전문성을 지녀야함은 물론이다(U. K. Small Business Service, 2001: 7, 9). 영국 정부는 중앙정부 내 중소기업에 대한 모든 지원정책의 방향설정을 하나의 '우산' 밑으로 모으려는 의도로 SBS를 신설하였으며, 이러한 의도는 SBS의 정책자문 및 조정 역할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

중앙정부 수준에서 행해지는 SBS의 정책조정 노력은 정부에 의한 중복된 중소기업 규제와 지원을 줄여나가는 데 집중되고 있다. 중복된 규제는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 그리고 중복된 지원정책과 지원창구 역시 정책수혜자인 중소기업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SBS는 보다 일관된 규제와 지원을 위해서 여타 정부부처들과 긴밀한 공조를 취하고자 하며, 단일의 웹 포털사이트를 개발하여 중소기업의 혼란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SBS는 조사활동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즉, 중앙정부 내에서 정책조정 및 자문역할의 수행에서 여타 부처와 기관들을 설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정된 정책을 중소기업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SBS는 기존의 정책들로부터 나오는 교훈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자 한다(U. K. Small Business

Service, 2001; 2002b). 이는 조사 및 연구활동의 활성화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객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조사·연구활동의 결과물들은 정책결정과 집행의 수준을 높이고 SBS가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SBS는 DTI의 책임운영기관이다. 따라서, 그 기관장은 기관운영상의 상당한 자율권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책임운영기관이라는 기구 특성과 내각책임제로 운영되는 영국 정치·행정체제의 특성상 SBS의 장이 직접 정책조정을 주도하거나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내각의 정책협의 과정에 참여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점은 DTI의 장관(*Secretary of State*)이 SBS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과, DTI 내에 SBS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차관(*Minister*)이 있다는 점에 의해 부분적으로 보완된다. 또한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SBS는 ‘중소기업지원청정책자문회의’(SBS Strategy Board)와 ‘중소기업위원회’(The Small Business Council)라는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다.

먼저 ‘중소기업지원청정책자문회의’는 DTI 내의 장·차관들과 SBS의 지도부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이 기관은 종전의 ‘중소기업

그림 1
정책형성·집행상의 SBS
역할 및 정책과정에 대한
조사·연구의 기여

지원청운영회의'(Steering Board)를 대체한 것으로서 SBS의 전략과 목적 승인, 성과평가,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서 승인 등 '운영회의'보다 적극적으로 SBS 활동에 개입하고 있다. '정책자문회의'는 DTI의 중소기업담당 차관(Parliamentary Under-Secretary of State)을 의장으로 하여 재무성 기업국장, 통상산업성 기업혁신국장과 공정거래국장, SBS 책임자 및 부책임자, 그리고 정부 외의 위원 5~6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자문회의'는 특히 영국 정부 내에서 가장 강력한 발언권을 지니고 있는 재무성의 고위관료를 그 위원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서 통상산업성만으로 운영되는 것에 비해 SBS에 보다 확대된 정책조정 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정책자문회의'의 역할강화는 2001년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통상산업성 주관의 평가보고서가 나온 후 중소기업 지원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추진되었다(<http://www.sbs.gov.uk>).

'중소기업위원회'는 2000년 5월, 중소기업과 관련된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상산업성 장관과 SBS 책임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23명의 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출범하였다. '중소기업위원회'의 위원들은 대부분 실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들로써 정기적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일반 중소기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기도 한다.

이 위원회는 (1)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을 통상산업성장관에게 직접 보고 하며, (2) SBS를 포함한 정부 부처들의 활동과 계획이 중소기업에게 미칠 효과를 SBS 책임자와 통상산업성장관에게 조언하며, (3) 필요시 위원장이 총리를 면담하여 중소기업에 관한 문제를 토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이 위원회의 역할강화도 2001년 통상산업성 주관의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나온 후 정부 내 '중소기업을 위한 독립된 대변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행해지게 되었다(<http://www.sbs.gov.uk>).

SBS는 '전략·거버넌스·학습', '관리', '마케팅·브랜드', '기업환경', '투자·금융', '기업·혁신', 'e-서비스'의 7개 국과 9개의 지부

(SBS Regional Teams)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2〉 참조). 2003년 5월 현재 SBS는 중앙본부와 지부를 합쳐 총 507명(지부 149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앙본부는 런던과 셰필드의 두 곳에 분산하여 위치하고 있다. SBS 직원의 대다수는 직업공무원 출신이나, 이들은 통상산업성뿐 아니라 정부의 여타 부처로부터 충원되었다. 한편, 직원의 일부는 민간기업 출신들로서 이들은 SBS의 민간부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U. K. Small Business Service, 2003b: 18).

2) 지방수준의 정책집행체제

SBS는 정책조정 역할뿐 아니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SBS가 직접 관장하고 있는 서비스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SBS는 기업의 창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 — 사업계획, 수출, 고용, 교육·훈련, 혁신, 규제, 전자상거래 등 — 에 관한

그림 2
영국 SBS의 조직도

일반적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과 상담을 수행하며, 사업자금·혁신·정보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 조언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SBS는 Smart 프로그램,⁸⁾ 중소기업 대출보증제도(*Small Firms Loan Guarantee Scheme*),⁹⁾ Enterprise Grants, Phoenix Fund,¹⁰⁾ UK High Technology Fund, Regional Venture Capital Funds¹¹⁾ 등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대출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다(U. K.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1999: 26~27).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사항은 SBS가 Business Link Operators(BLOs)를 통해 위의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Business Link 제도는 199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그 취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조언을 위한 one-stop shop을 설치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전국적으로 80개의 Business Link Operators가 있었으나 SBS가 들어선 후 45개로 정비되었다. BLO들은 민간부문에 속해 있는 기관들로서, 각 BLO는 공개적 경쟁과정을 통과한 후 SBS와 3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여 위의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BLO가 수행하고 있는 SBS의 주요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의 창업과 운영을 돕기 위한 각종 정보와 조언의 제공, (2) SBS 관리하의 재정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중소기업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처방, (4) 회계기법 등 전문적 기술관련 지도, (5) 정보기술과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보제공, (6) 필요한 경우 여타 민간의 중소기업 지원서비스에 대한 소개 등이다. 한편, BLO의 사업에는 SBS와의 계약내용에 들어 있지 않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BLO들은 중소기업의 인력개발과 포괄적 국제상거래 관련 역량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기타 활동지역 내 조직들과의 협력하에 고유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상의 SBS와 관련된 서비스 및 SBS와 관련되지 않은 서비스 제공에서 BLO들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경우에 중소기업들로부터 서비스 이용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BLO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의 상당부분은

SBS로부터 제공되고 있다(U. K.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2001; Chamber Business Enterprises, 2000; Business Link, 2003).¹²⁾

그러나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지역단위 조직에는 BLOs 외에도 SBS 지부(SBS Regional Teams)와 지역개발기구(RDAs: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및 자치단체들이 존재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SBS는 영국 전역에 9개의 지부를 두고 있다. 이 지부들은 관할 지역 내에 있는 BLO들을 관리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으며, Smart와 Enterprise Grant 등의 재정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관장하고 있다(U. K. Small Business Service, 2003b: 18).

SBS의 BLOs 관리는 계약체결 과정에서부터 시작한다. SBS 본부는 후술할 RDAs 및 기타 기관들과의 합의하에 BLO 활동을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며, Business Link Operator에 응모한 민간조직들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SBS 지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SBS 지부는 SBS 본부에서 작성한 업무지침과 해당 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직을 SBS 본부에 추천한다. SBS 본부는 이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Business Link Operator로 선정된 기관들은 Business Link라는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3년 동안 해당 지역의 전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활동하되 SBS 지부의 직접적 관리를 받게 된다(U. K.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2001: 166~167).

현재 영국에는 9개의 지역개발기구(RDAs)가 설치되어 있다. RDA의 설립목적은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과 쇄신을 추진하고, 기업활동의 효율성과 경쟁력 및 투자확대를 촉진하는 데 있다. 이 RDA들은 1999년에서 2000년에 걸쳐 통상산업성, 환경교통성, 교육기술성 등 세 중앙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출범하였다. RDA들은 광역자치단체들과의 파트너십하에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들을 광역적 차원의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서비스 전달자 또는 대리인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RDA들이 해당 지역 자치단체들과의 협력하에 지역개발의

중추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SBS 본부는 각 지역 내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이나 지역 BLO의 업무지침 작성에서 RDA와의 합의를 모색하여야 하며, 지역 BLO의 사업계획이 RDA의 경제개발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BLO와 SBS 지부뿐 아니라 RDA와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소기업 지원에 관여되어 있음으로써 서비스의 중복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 수준에서 마련된 중소기업 지원시책과 유사한 제도를 중복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U. K.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2001: 149~154).

4. 현 중소기업 지원체제의 성립근거 및 앞으로의 개선방향

중앙정부 수준에서 SBS를 출범시킨 근본이유는 영국경제의 활성화에서 중소기업이 갖는 중요성을 영국 정부가 인식하였다는 점이다. 그런데, 통상산업성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관장하는 경우, 중소기업 정책을 부의 최상위 과제로 다루는 데 한계가 있었고, 그 결과의 하나로서 여타 부처에서 마련되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정책의 수혜자인 중소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정부 정책결정에 반영하기 힘들었다. 따라서 영국 정부는 중소기업 전체를 정책의 대상으로 하여(*comprehensiveness*), 단일기관을 통해 정부지원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simplicity*), 중소기업들이 자신의 의견을 정부에 투입하는 명백한 창구를 마련하려는(*communication*) 의도하에 SBS를 출범시키게 되었다(U. K.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1999: 9).

그런데, SBS를 통상산업성의 책임운영기관(*agency*) 형태로 한 이유는 이 형태가 통상산업성에 대한 SBS의 독립성을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만약 책임운영기관 형태가 아니라 통상산업성 내의 국 형태에 머무르게 되면 중소기업을 대변한다는

SBS의 역할이 크게 두드러지지 못할 것이다. 또한 만약 SBS를 통상 산업성이 아닌 다른 부처의 책임운영기관으로 하게 되면, SBS는 통상 산업성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얻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SBS는 통상 산업성의 책임운영기관으로 출범하게 되었다(U. K.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2001: 9).

그러나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SBS는 중앙정부 내 여타 부처와 기관들에 접근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자문회의와 중소기업위원회 등의 권한을 강화하였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또한 총리의 지원하에 중소기업의 사전정책협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지방수준에서는 현재의 체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 SBS의 설립과 같은 체계적인 논리적 기반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위에서 지적한 대로 지방수준에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지원행정에 관여하고 있는 기관들은 BLOs, SBS 지부, RDAs,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가지이며, 그 부수효과로서 서비스의 중복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복과 혼란은 일시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형성된 특징을 지닌다. 즉, 각 기관들이나 그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특정한 시기에 제기된 특정한 필요에 응답하기 위해 형성된 것인데, 그것들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서비스의 중복이라는 효과를 내게 된 것이다.

또한 중앙과 지방 간의 충돌과정에서 이러한 혼란과 중복현상이 나타나게 된 측면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중앙정부는 새로운 기관의 형성이나 서비스의 도입을 결정하고 이를 지방의 기존체제에 부과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보편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중앙의 의지와 지역에 맞는 자원배분방식을 강조하는 지방간에 의견의 상충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들에 의해 유사한 서비스들이 도입된 것이다. 사실상 SBS의 출범과 그에 따른 SBS 지부설립의 경우도 중앙에서 도입이 결정된 체도를 지방에 부과한 기존의 형식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U. K.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2001: 149).

이러한 현 체제는 중앙과 지방 수준에서 정책실패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중앙정부 수준의 경우, SBS가 중소기업관련 정책조정과 정책리더십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여타 부처들이 공식적으로 SBS나 SBC(중소기업위원회)에 정책의 사전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의 'Think Small First' 지향이 여타 부처의 정책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 SBS는 그 설립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채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지방수준에서는 서비스의 중복을 해소하고 혼란을 줄이는 데 실패하고, 오히려 SBS 지부와 RDA(및 지방정부)가 BLO의 운영과 관련하여 불협화음을 일으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BLO들은 공식적으로는 SBS 지부의 관리를 받아야 하지만, 실질적 운영에서는 RDA와의 업무협조가 몹시 긴요하며, 이 과정에서 SBS 지부와 RDA 간의 긴장관계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영국 정부와 SBS, 그리고 RDA들과 지방정부들도 이러한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위의 정책자문회의와 중소기업위원회에 더하여 이른바 'Whitehall Group'을 형성하여 이 기구를 중심으로 정책조정의 실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노력이 추가되었다. 'Whitehall Group'은 2001년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통상산업성 주관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에 참여했던 중앙정부 내 여러 기관(통상산업성, 재무성, 교육기술성, 근로·연금성, 환경·식품·지역성 등)의 고위급 실무자들이 평가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도 해산하지 않고 지속되어 정기적으로 정책방향을 토론하고 정책을 조정하는 공론의 장으로 발전된 것이다(U. K.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2001: 171).

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의 중소기업정책에 관한 총리 주관의 정기적 실적평가회의도 기획중에 있다. 또한 현재 BLO들이 주로 SBS의

사업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중앙정부 내 여타 부처들도 BLO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전달하는 노력을 증진하도록 여타 부처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U. K. Small Business Service, 2001: 9).

지방수준에서는 BLO의 관리책임을 RDA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BLO의 관리책임을 SBS가 담당하는 것이 좋은지, RDA로 이전하는 것이 좋은지를 판단하기 위해 2002년 11월부터 North West, West Midlands, East Midlands 등 세 지역에서 RDA가 BLO를 관리하는 시범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2003년 가을부터 2004년 초에 걸쳐, 이 시범사업의 효과를 측정하여, 이를 SBS 지부가 관리하는 여타 지역들과 비교하는 작업이 수행될 것이고, 이는 어떤 체계가 지역 및 지방수준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지를 판단하는 기본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영국 정부는 이 평가결과 등을 활용하여 최선의 모델을 모색한 후 2006년부터 새로운 전달체계를 제시할 계획으로 있다(U. K. Small Business Council, 2003: 12; U. K. Small Business Service, 2003a: 13).

이처럼 RDAs에 BLOs의 관리책임을 맡길 것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RDAs가 지방수준에서 형성·운영하고 있는 파트너십(*sub regional partnership*)의 존재와 그 가치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부분의 RDA들은 해당 지역의 BLO와 지방정부들은 물론 은행, 회계기관, 기업조직을 포함하는 여타의 민간 및 자원조직(*voluntary organizations*)들을 포괄하는 협의체를 형성·운영하고 있다. 2001년 'Whitehall Group'의 정책평가보고서는 이 협의체가 여러 기관들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포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 서비스의 중복을 제거하고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의견교환을 가능하게 할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파악하고, 이 파트너십을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U. K.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2001: 10~11, 15).¹³⁾ 'Whitehall Group'의 이러한 평가가 시범사업의 시행을 이끌어낸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BLOs의 관리책임 이전 가능성이 검토되는 것과 병행하여 SBS 본부에 대해서는 서비스 프로그램의 직접적 전달 역할로부터 정책조정과 정책영향력 행사 역할로의 이전이 모색되고 있으며(U. K. Small Business Council, 2003: 11), 이러한 맥락에서 SBS의 정책역할을 중시하는 새로운 정책지침서(*Small Business and Government: The Way Forward*)가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중소기업 지원서비스의 전달과 관련한 영국의 정책체제는 아직도 변화의 과정에 놓여 있으며 어떤 체제로 귀결될 것인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5. 결론: 영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체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시사점

영국의 중소기업 지원체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앙정부 수준에서 거론할 수 있는 사항들은 첫째, 최고 정책결정자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영국은 정부의 수장인 총리가 앞장서서 영국의 경제·사회적 발전에서 중소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관련부처들을 독려함으로써 통상산업성(DTI)과 중소기업지원청(SBS) 뿐 아니라 여타 중앙정부 부처들의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관심 또한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앙정부 내에서 중소기업관련 정책들을 조정하고 여타 부처들에 대해 자문을 수행하는 기관을 SBS 하나로 단일화하고, 이 기관에 대한 공식적·비공식적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영국정부는 SBS를 중앙정부 내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기능을 전담하는 유일의 창구로 지정하였으며, 책임운영기관 형태로 운영되는 SBS의 정책기능상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위원회'와 '정책자문회의'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관련 부처의 고위 실무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된 'Whitehall Group'이라는 정책조정기구를 운영하고 있

다. '중소기업위원회'가 실질적으로 SBS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한 점과, 'Whitehall Group'이 정부 내 발언권이 큰 부처들의 고위간부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이 이러한 보완기구들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또한 총리를 비롯한 고위 정책결정자들이 여타 부처들로 하여금 해당 부처의 정책이 중소기업에 미칠 수 있는 정책효과에 대해 SBS에 사전협의를 수행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셋째, 위의 두 사항들과 연결된 것으로서, 중소기업정책과 관련된 정치인(예: 장·차관)이나 민간인 대표(예: '중소기업위원회'의 의장)가 필요한 경우 총리에게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한편, 서비스의 전달이 이루어지는 지역수준에서 거론할 수 있는 사항들은 첫째, 중소기업 지원창구를 단일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Business Link Operators는 SBS와의 계약에 의해 자신이 담당하게 된 지역에서 중소기업과 관련된 주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또는 다른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One Stop Service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형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BLO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을 일으키는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으나, 현재 진행중인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정리되는 2006년부터는 SBS 또는 '지역개발기구'(RDAs) 중 하나로 BLOs의 관리책임이 결정되면서 보다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서비스 전달체제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지역수준에서 서비스 전달에 관여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RDA, 자치단체, BLOs, SBS 지부, 중소기업조직 등)간에 파트너십을 조장할 수 있는 조정기구를 제도화하고 있다. 서비스 수혜자인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내에서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조정하려는 노력이 긴요한 조건이 된다. RDA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이러한 조정기구는 앞으로 지역 내 서

비스의 중복과 혼란을 제거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중앙과 지방수준에 공통된 것으로서, 영국 정부와 관련기관들은 이념이나 주먹구구가 아니라 증거에 근거하여 정책입안과 제도운영을 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SBS가 조사와 연구활동 결과에 근거하여 정책리더십을 발휘하고 서비스 전달 방식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나, RDA를 비롯한 지방수준의 기관들이 이러한 조사결과에 토대를 둔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 등을 통해서 발견되고 있다.

이상 영국의 중소기업 지원체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체제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창구를 단일화하고 이 기관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청으로 이분화된 현 중앙기구 체제는 그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앙정부 내에서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기관을 하나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으나, 그 기관은 현 기관들보다 강화된 위상을 지녀야 한다. 기관의 위상강화는 중소기업정책의 입안과 조정을 담당하게 될 중소기업 전담기구의 수준을 장관급으로 하는 조직구조상의 개편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조직구조상의 개편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 전담기관이 중앙정부 내 여타 기관들이 중소기업에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받게 되면 중소기업 전담기관의 위상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전담기관에 대한 여타 중앙부처들의 사전협의를 필수적 과정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주요 부처와 기관의 고위간부들로 구성된 정책조정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이 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전담기관의 장이 실질적 정책입안과 조정상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¹⁴⁾ 또한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되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한 중소기업 전담기관의 장이 최

고 정책결정자인 대통령에게 직접 기관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상의 모든 제도적 보완이 실질적으로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의지가 확고히 서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수준에서 볼 때, 우리나라도 다양한 기관들이 중복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업무중복이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음은 모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방수준에서의 서비스 제공통로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기관이 주된 서비스 제공통로가 되어야 할지의 판단에서 기준이 되어야 할 포인트는 서비스 수혜자인 중소기업의 편의증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전제하에서 포괄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대안의 모색에서 '시간' 차원을 고려하여, 단기적 및 중·장기적 방안을 구분하여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서비스 제공기관이 현재 지니고 있는 역량의 한계를 고려하여 일단 단기적으로는 차선의 기관을 서비스 제공통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¹⁵⁾ 한편, 이러한 대안 모색을 위해서는 단순히 이념적 입장이나 자의적 판단에 근거한 정책제안을 지양하고, 보다 논리적 체계와 경험적 조사에 근거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충실한 연구와 조사가 결론 도출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수준에서 활동하는 여러 기관들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이 협력체제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체제를 개발하는 기간 동안 지방수준에서의 원활한 중소기업 지원을 가능하게 할 과도기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지방중기청 중심의 금융지원위원회, 지역기술협동추진협의회, 재해대책지원협의회 등 지역 중소기업 지원기관 협의회를 통합한 체계적 종합조정기구를 제도화(법제화)

하고, 종합적 조정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조개선 및 재래시장특별법상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수립·시행권을 지방중기청장에 부여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이종수·오철호 외, 2003). 한편, 서비스 제공을 총괄할 기관이 궁극적으로 단일화된다고 하여도 그러한 체제는 여타 기관들과의 협력이 수반되어야만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정리된 방향하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및 행정체제를 재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한다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보다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

- 1)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여러 업종에 관련된 각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기능의 유사·중복을 방지하고 관계 부처간 원활한 조정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 중소기업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일반부처차원의 업무영역을 지니고 있으나, 이를 보좌할 정식조직과 실무인력의 절대부족으로 업무추진의 지연과 공백이 초래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타 정부부처에 비해 위상이 낮기(차관급 청장)때문에 전 업종에 걸쳐 종합적 중소기업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관련부처간 원활한 조정과 업무협조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제조업과 유통업을 관장하는 산업자원부에 소속된 외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대상범위가 주로 제조업과 유통업에 국한되고 있다.
- 2) 예를 들어, 금창호(1996); 김재훈(1998); 진재구(1999); 김익식(2002) 등을 참조.
- 3) 영국의 중소기업(*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은 피고용인 수가 250명 이하인 업체를 지칭한다. 이 중 고용인 수가 0~9명인 업체는 극소규모(*micro*), 10~49명인 업체는 소규모(*small*), 그리고 50~249명인 업체는 중규모(*medium*)로 구분되고 있다.
- 4) 1999년도 조사결과임.
- 5) 기술적으로 새롭거나 개선된 생산품을 시장에 내놓은 기업의 88%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 6) 2000년에 출범한 영국의 중소기업지원청(Small Business Service)은 블레어 총리의 재가를 득한 'Think Small First'라는 정책추진지침을 2001년에 제시한 후, 다시 2002년에는 'Small Business and Government: The Way Forward'로 명명된 정책지침서를 작성하여 총리와 재무장관의 지원을 얻어 추진하는 등 활발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7) DTI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 및 집행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SBS를 제외하고 현재 DTI 내에는 중소기업 지원행정을 전담하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 8) 중소기업이 직접 연구개발을 하거나, 외부의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 자문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9) 대출보증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
- 10) 사회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중소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정지원 제도.
- 11)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이 벤처캐피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용되는 자금.
- 12) 이상 BLOs의 업무와 활동을 볼 때, BLOs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혼합시켜 놓은 형태인 것으로 보인다.
- 13) 'Whitehall Group'의 정책평가보고서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안목을 지녀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customer focus). 즉,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서비스의 질과 일관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된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서비스 소비자인 중소기업의 필요(needs)와 기대를 정부 부처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U. K.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2001: 11). 이런 진단을 내리고 있는 'Whitehall Group'은 RDAs가 구성하고 있는 협의체가 '소비자'의 관점에 입각한 서비스 제공에 보다 효과적인 기구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14) 이 기관에 참여한 여타 부처의 고위간부들은 자기 부처의 이익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점을 숙지시킬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 'Whitehall Group'의 구성원들은 자기 부처 내에서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대되고 있다.
- 15) 이종수·오철호 외(2003)는 여러 정책대안 중의 하나로서 단기적으로는 지방중소기업청,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로 중소기업지원 종합서비스 제공통로를 단일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참고 문헌

- 금창호. 1996.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정립방안》,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익식. 200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의의와 역할," 《지방행정》 51: 16~23.
- 김재훈. 1998. "중앙과 지방 간의 부문별 기능재배분을 위한 시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0(1): 27~44.
- 박재희 외. 2002. 《광역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간 기능조정 방안》,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소진광·이승중·이기우·윤두섭. 2002.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재정립 방안연구》, 서울: 한국지방자치학회.
- 오철호. 2003.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의 기능 및 권한 재정립,"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 이상수·차준섭·허정수. 2002.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중소기업특위·중소기업진흥공단·KOTRA의 조직연계방안》, 광주: 호남대학교.
- 이종수·오철호 외. 2003. 《중소기업 지원체제(기관)의 업무진단 및 역할재정립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행정학회.
- 이환범·주효진. 2003. "지방분권적 시각에서의 지방중소기업청 조직통폐합 논의에 대한 평가," 서울행정학회 2003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진재구. 1999.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중복의 유형과 재배분의 기준," 《한국지방자

치학회보》 11(2) : 103~124.

- Business Link. 2003. *Business Link: Give Your Business the Edge*, London: Business Link.
- Chamber Business Enterprises. 2000. *Small Business Service Franchise Proposal*.
- U. K.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1999. *The Small Business Service: A Public Consultation*, London: HMSO.
- _____. 2001. *Cross Cutting Review of Government Services for Small Business*, London: HMSO.
- U. K. Small Business Council. 2003. *Small Business Council Report 2003*, London: SBC.
- U. K. Small Business Service. 2001. *Think Small First*, London: HMSO.
- _____. 2002a. *Small Firms, Big Business: A Review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the UK*, London: HMSO.
- _____. 2002b. *Small Business and Government: The Way Forward*, London: HMSO.
- _____. 2003a. *Business Plan 2003: Making the UK the Best Place in the World to Start and Grow a Business*, London: HMSO.
- _____. 2003b. *The Small Business Service: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02-03*, London: TSO.

11. An Examination of the U.K.'s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Supporting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Jae-Hyun Joo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SMBs) with entrepreneurs and creative ideas are these days becoming an essential element of economic development. Thus, the governments of the major countries in the world economy are strengthening support for their SMBs, and the Korean government is not an exception. However, there exist some conflicts of ideas among the Korean experts concerning the best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supporting the Korean SMBs. This paper aims to contribute to this argument by suggesting the U.K.'s experience which shows considerable signs of success through its support system changed recently. The lessons we can draw from the U.K.'s experience are as follows. First, the institution championing SMBs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should be unified to a single but strong and effective organization. Second, the various channels supporting SMBs at the regional levels should be simplified and rearranged for a more effective way. Third, all the functional and structural reforms should be done not on an ideological basis but on an scientific basis.

Key Words: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support system, Institutional arrangements, United Kingdom